

IFS 국가 정책 제안 인구구조의 변화, 교육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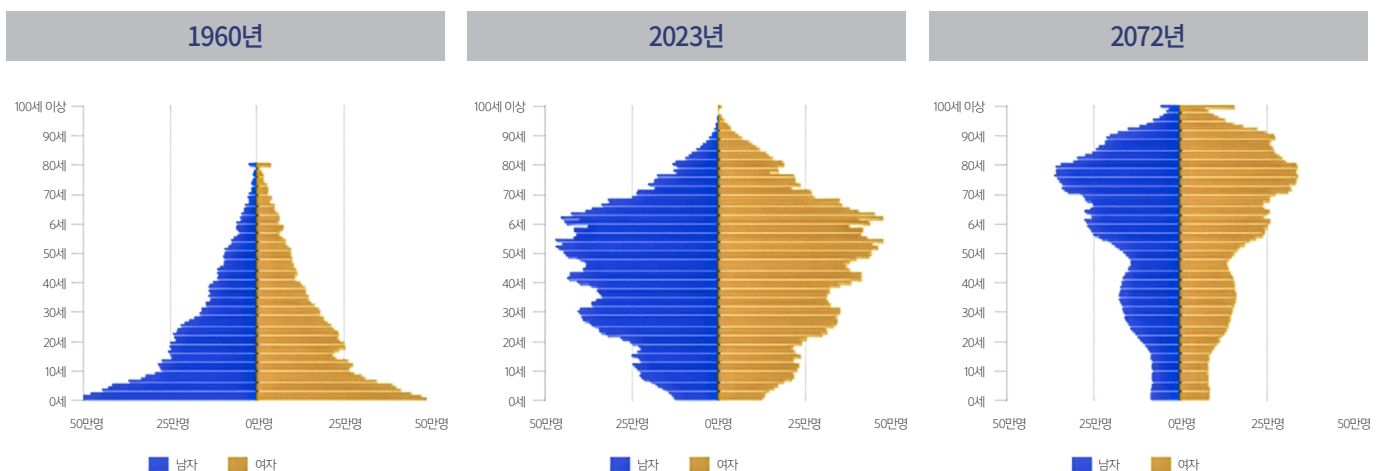
서울대 교육학과 한송희 교수



1 인구변동과 교육의 미래

인구변동과 학령인구

-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한국 사회의 핵심 구조적 조건으로 자리 잡음
- 이러한 구조적 조건은 지금까지의 여러 난제들, 예컨대 입시제도 개혁, 교육방식 혁신, 교육 트랙 다양화, 고등교육 구조조정 등 대부분의 문제의 성격을 변화시킬 만큼의 위력을 가진 근본 문제가 되었음
- 그러나 교육 정책 논의는 여전히 청년층과 학령기 교육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으며, 시가 인간의 지적 능력을 추월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또한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원 단계에 대한 대책 역시 부족한 상황임
- 1960년대에 하부가 넓은 전형적인 피라미드형 구조였던 인구 분포는, 40대, 50대, 60대, 이른바 4060세대가 가장 두터운 항아리형 구조로 전환되었으며, 2072년에는 상부가 두꺼운 역피라미드형 구조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됨
- 지난 수십년 동안 인구감소의 문제는 주로 ‘어떻게 출생률을 높일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띠었으나, 이와 달리 많은 미래 예측들은 ‘한국사회는 어떻게 인구 2,000만명 시대를 준비하며 정착시킬 것인가’라는 문제에 눈을 돌릴 것을 제안함
- 소수화된 청년세대 인재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선발에서 지원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며, 이는 학생을 평가와 탈락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관점에서의 전환을 의미함
- 또한, 이제는 4060세대의 학습을 통한 경력 전환, 노동시장 재진입 및 창업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을 개발하여 삶-일-학습 병행 모델이 뉴노멀로 정착해야 함
- 이에 본 브리프에서는 2025년에 개최한 3개 심포지엄의 8개 세부 주제 발표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학계와 사회에 신선한 쟁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2 교육 패러다임의 이원적 전환

전환 1: 인구 감소에 대한 교육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 한국 사회에서 교육은 오랜 기간 동안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기능해 왔지만, 한국 교육체제는 현재의 사회·경제적 조건과 조응하지 못하는 구조적 단계에 진입함
- 선발 중심 교육 체제에서 벗어나 '선발에서 지원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 이는 학생을 평가와 탈락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학생의 성장과 발달, 다층적 기회를 지원하고 낙오자를 최소화 하는 관점으로서의 전환을 의미함
- 교육의 목표를 선발 중심에서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공정성만을 기준으로 설계된 상대적 비교 중심 구조로부터 다면적 창의성과 학습민첩성(agility)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검토되어야 함
- N수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학입시제도 개선과 수능의 자격 고사화가 필요함

목표 : 인구 감소 시대에 부족한 인적 자원을 창조형 인재로 양성

모방형 교육 선발 (경쟁)

획일적인 기준 (한 줄 세우기)

낙오자에 대한 배려 부족 (second chance 부재)



창의적 교육 학생 지원

다양한 특성과 전문성

낙오자 최소화 (second chance 부여)

전환 2: 4060세대를 깨우는 교육모형

- 학령기에 교육이 끝나는 단선적 구조를 파괴하고, 전 생애 주기에 걸쳐 교육과 노동이 선순환하는 '개방적 다출구형 교육체계'로의 전환이 절실함. 이는 교육을 청년기의 일회적 경험이 아니라, 생애 전반에 걸친 과정으로 재정의하는 전환을 의미함
- 주4일제 및 유연근무제 등 파격적인 정책을 통해 '삶-일-학습'의 병행을 가능하게 하고, 교육 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는 파격적 정책 도입하는 등 4060세대의 재교육을 위한 제2의 공교육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폐쇄적 계단형 교육체계 (Closed Linear Model)

- 초등학교에서 시작해서 대학교에서 종료, 대학이 유일한 출구
- 단선형 계단 도식, 중간과 회귀는 "일탈 혹은 비정상"
- 중간에 다른 출구 없음(예: 직업, 인턴십, 다른 진로 선택), 학교 밖 청소년 = 문제 청소년 이미지
- 사다리/계단 모양으로 표현되고, 옆 길이나 들어올 길이 막힘
- 계단에서 떨어지면 재진입이 어렵고, 복귀가 불가능하다는 불안

개방적 다출구형 교육체계 (Open Multi-Exit/Entry Model)

- 지하철 노선도 모양 혹은 순환형 다이어그램
- 다양한 진입(학력, 학위 등)에서 출입이 가능한 경로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교 → 성인학습' 사이의 복수의 출구/진입구(예: 인턴십, 취업, 창업, 해외경험 → 학교로 복귀)
- 노드와 링크(출입구) 구조, 경로 선택의 자유
- 학습 경로가 경직되지 않고, 유연하게 재진입 가능

3 학령인구 소멸과 교육 대응

초·중등 교육: 학교 단위 대응의 한계와 교육 체제 차원의 과제

- 학생 수 감소에 대한 대응은 다차원적인 영역, 즉 개별 학교가 아닌 지자체 및 공동체를 포함한 마을교육 생태계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
- 인공지능 보편화 시대의 학생 창의성 향상 및 평가 체계 구축을 위하여 창의적 역량의 개념을 재정립해야 하며, 에듀테크 도입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 논의를 확장해야 함
- 다양한 형태의 학교 운영, 교원 배치와 역할에 대한 재검토, 교육의 질 개념 재정립, 교육 성과에 대한 관점 전환 등 산업사회시대 학교 체제의 유연화가 필요함

대학 교육의 역할 변화: 정답 중심에서 사고력 중심으로

- 인구 감소와 산업 구조 전환 맥락에서의 대학 교육 역할 변화가 필요함
-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질문하는 토론하는 문화(예: 이스라엘의 후즈파)와 학생의 사고를 이끌어내는 퍼실리테이터로서의 교수 역할의 변화가 필요함
- AI 공존 시대의 핵심은 빠르게 학습하는 역량이며, 학습법의 학습(Learning how to learn) 및 학습민첩성(learning agility)을 기르는 데 집중해야 함
-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을 교육의 대전제로 하는 교육과정과 평가 방식이 필요함
- 대학이 혁신적 기술 스타트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전면적 역량을 길러야 함

대학 연구 영역에 찾아온 변화

- 대학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연구 영역에서의 변화는 더욱 급진적으로 나타남. 수년이 소요되던 연구가 인공지능과 로봇 실험 시스템을 통해 단기간에 수행되고 있으며, AI는 연구자의 역할과 연구 조직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정의하고 있음
- 인공지능 시대 대학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개념은 '협력'. 인공지능 시대의 대학 역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인공지능 간의 협력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예측됨
- 가르치는 데 교육의 초점을 맞춰, '협력적 사피언스'를 양성해야 함. AI와 조화롭게 공존하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협력적 소통 능력" 교육을 강화해야 함



3 학령인구 소멸과 교육 대응

서울대 10개 만들기: 문제 제기와 출발점

-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대학서열 타파, 국토균형 발전, 4차 산업 혁명, 인구소멸 극복, 부동산 문제해결,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융합적 최상위 국가전략임
- 이미 설정된 모델을 적용하거나 서울대라는 동일 모형을 전국화 하려는 시도가 아니며, 다양체로서의 대학생명체를 지역RIS 사업과 연계하여 진화시키려는 프로젝트임. 대학, 산업, 연구를 밀도 높게 결합함으로써 세계적 대학을 중심으로 기업과 연구 인프라를 집중시키는 전략이 필요함
- 한국 사회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 문제는 단순한 인구 이동이나 산업 정책 실패의 결과가 아니며, 세계적 수준의 대학을 5극3특 지역의 중심 위치에 분산배치함으로써 균형성장을 선도하게 함

대학원 신진학문후속세대 확보를 위한 정책적 제안

- 대학원을 국가 연구개발 인력 재생산의 핵심 제도로 인식해야 함
- 인구감소로 인하여 혁신경제를 이끌 대학원 학문후속세대 연구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움. 인재풀을 사이에 두고 기업과 대학원간 줄다리기가 벌어짐
- 대학원의 양적 확대를 위한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야 하고, 대학원과 대기업 간 인재 경쟁이 아닌 협력적 관계 설정이 필요함. 박사과정 스타이펜드(stipend) 제도를 도입하여 대학원 진학이 개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구조를 없애야 함

평생학습: 4060 세대를 위한 교육 패러다임과 구체적 교육 행동 변화

- 중장년층은 스스로 노후를 책임질 수 있어야 하며, 40대부터 노후 전직과 재적응을 위한 삶-일-학습의 병행이 가능한 교육-노동 통합체계가 필요함.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범위와 작동 방식을 전면 개정하고 삶-일-학습 병행을 선도할 수 있도록 체계화해야 함
- 국가가 매년 새로운 노동력이 다수 필요할 신생 산업분야를 지정하고, 신생산업으로 이동하려는 노동력에 대한 훈련·생활 비용 전액을 지급하는 <메이저 업그レード 프로젝트>가 필요함
- 이를 위하여 새로운 교육훈련을 전유하는 평생직업중심대학을 광역시·도 단위로 구축해야 하고, 전문대 및 4년제 대학들을 그 체계 안에 준공영제로 흡수통합할 수 있음
- 4060 세대 학습훈련을 지원할 수 있는 단독의 전임부서를 마련하기 위해 교육·노동·복지의 관련부서를 분리·통합할 필요가 있음

